대법관 3명 인준안 우여곡절 끝 통과

노·이·김 청문보고서 채택
한국당 '다운계약' 김선수 반대
회의 강행에 의원들 퇴장

한국당 항의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퇴장한 틈에 회의를 강행한 것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뒤쪽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271표 가운데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또 이동원 후보자(찬성 247명, 반대 22명, 기권 2명)와 김선수 후보자(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도 각각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다른 두 후보자에 비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많은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및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졌다.

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은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다.

노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됐다가 199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1년 다시 판사로 돌아온 노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가 있다.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 출신이다. 그는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였고 민변 회장도 지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에 바른미래당 이찬열(3선)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4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교육위원장과 안 문광위원장은 총 271표 가운데 각각 242표, 194표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앞서 16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국방위원장 등 16개 상임위 위원장을 뽑은 바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두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 일정이 미뤄졌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오완호 위원을 추천하는 안도 가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 48.6% "靑 협치내각 찬성"

리얼미터, 반대 보다 14.8%P 높아…정의당 지지 소폭 상승

청와대의 협치내각 구성 제안에 대한 국민의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협치내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반대 응답(33.8%)보다 14.8%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찬성 55.7% vs 반대 23.5%), 서울(52.5% vs 32.4%), 대전·충청·세종(52.0% vs 35.1%)에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대구·경북(42.1% vs 41.2%)과 부산·울산·경남(39.2% vs 43.5%)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정당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소폭 반등하며 45.1%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0.4%포인트 오른 18.7%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별세로 충격에 휩싸인 정의당 지지율은 10.5%로 4주째 10%대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은 1.4%포인트 오른 7.7%로, 창당 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평화당(2.7%)은 0.5%포인트 내리며 다시 2%대로 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내린 62.0%를 기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유성엽 "평화당, 이름 빼고 다 바꿔야"

전남도의회서 당 대표 출마 회견…"민생·민주정당으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유성엽〈사진〉 의원은 26일 "평화당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명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케케묵은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 경제 정당, 민생 정당, 민주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상설특별위원회인 '경제해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 대표가 직접 겸임하고 수시로 경제정책을 점검하겠다"며 "전남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에너지 밸리 정책을 협조하고 지원해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메카로 만들고 관광산업도 육성해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이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적폐청산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만큼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난관에 부닥칠 때를 대비해 정부 여당의 경쟁자이자 대안 정당으로 평화당의 역할을 부각했다.

유 의원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며 "실패한 리더십이 아닌 참신하고 유능한 새 간판이 필요한 만큼 유성엽이 평화당의 미래, 새로운 '호남의 힘'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노회찬 의원 별세로 평화당과 정의당 의석수가 19석으로 줄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것과 관련해 그는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통화해 '꼭 좀 함께하자'고 요청했고 다시 전화하고 만나서라도 설득하겠다"며 "많은 의원이 손금주(나주) 의원에게도 거듭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靑 비서관' 광주·전남 인사 중용 관심

靑 2기 조직개편…자영업 비서관 신설 중소상공인 정책 총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이와 관련, 추후 이뤄질 비서관 인사에서 광주·전남 인사들이 중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비서관실의 통합 및 분리, 명칭 변경 등도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 있다. 3개의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6개의 비서관실이 3개로 통합된다"며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되고,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했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한다. 반면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하나로 통합해 정무비서관만 남기기로 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역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는데 청와대의 지방분권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 역시 하나로 합쳐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두기로 했다.

일부 비서관실은 명칭이 변경됐다. 우선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이름을 바꿨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쌍방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꿨고, 시민사회비서관은 사회참여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을 각각 바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당정, 자녀 장려금 1인당 최대 7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올 세법개정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지급된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융3억)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융 2천)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융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융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정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정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정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정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정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정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죽동 (98평)
▶ 감정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감정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6평 건427평)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7억1천9백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감정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6층) 117평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감정가 4억4천7백 → 최저가 4억4천

A.P.T / 주택
①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 (40평) ▶감정가 2억8천 → 최저가 2억
② 광산구 수완지구 수완리채 (32평)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1억2천
④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적 1억1천

공장 / 기타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90평 ▶감정 68억 → 최저 47억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6평 ▶감정가 12억 → 최저 9억8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